

# 리아호나

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킴,  
16쪽

상호부조회로 옮겨감, 26쪽

가족을 위한 신앙의 방패,  
친10



**고** 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에  
따르는 어려움은 마치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서 식품을 주문하듯이 기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받아야 할 축복을 꼭  
주문하고는 전화를 뚝 끊듯이 기도를  
끝냅니다. 우리가 기원하고 또 요청하는  
것에 관해 명상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처럼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의 “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킴”, 16쪽  
참조.

# 리아호나



표지

앞: 모델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뒤: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복사 금지.



친구들 표지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우리를 따름", 친2 참조

##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아버지, 어머니, 결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0 성찬식 예배 러셀 엠 넬슨 장로
- 16 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킴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극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
- 28 상호부조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렌 포터 곤트
- 38 말일성도의 소리  
우현으로 표류하는 함선 아치 디 스미스  
고통의 극복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됨 와싱턴 잠브라노  
꼭 필요한 도움 마가렛 케이 크리스텐슨
- 48 애독자 편지

## 청소년

- 8 벽에 걸려 있는 금언 제레미 로버트슨
- 15 나의 영감 받은 선교사 부름 링컨 피델렐 마틴스
- 24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마지드 에이 커크패트릭
- 26 두 번째 발걸음 새나 버틀러
- 32 귀기울여 들어줄 어떤 사람 엔고지 에프 오코로
- 34 가치관을 위한 노래 자넷 엔 오코스
- 37 포스터: 여러분의 행동을 정리하십시오
- 42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 44 질의 응답: 남자 친구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복음보다는 저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7 알고 계십니까?

##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를 따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반석 위에 지으라 쉐라 이 윌슨
- 친6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사도의 간증
- 친8 데이비드의 기도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 친10 포스터 기사: 신앙의 방패
- 친12 친구가 친구에게: 가족의 전통  
크리스토펠 골든 이세 장로
- 친14 위젤을 지켜 주심 줄리아 올드로이드

"신앙의 방패", 친10 참조





원본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스티븐의 아신타. 일 프레이레, 로살레스 주마에타. 복사 금지

**첫 번째 시현, 아신타 엘 프레이레 로살레스 주마에타**

“나는 ... 빛 기둥을 보았으며 ...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을 ... 보았습니다.”라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기록했다.(요셉 스미스서 2:16~17)  
이것은 칠레 자수용 겹실로 짠 작품임. 그레그 케이 올슨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만든 것임.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로버트 다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타인  
**고문:** 이 레이 베이트먼, 몬티 제이 브러프, 제이 이 젠슨,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라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홀스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사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카르, 애덤 시 홀슨,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벨, 킴벌리 웹,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엘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유크

**배우 책임자:** 크리스티 크리스티안

통 권: 제 461호, 제 471권, 제 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4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바꾸고 ☎ 02-2232-1441, ☎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에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루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파냐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노르웨이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urch Copyrights and Permissions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또는 전화 번호: 1-801-240-3959, 또는 이메일: **cor-copyright@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August 2004 No. 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성찬식 예배**”, 10쪽: 성찬 기도문(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을 읽고, 떡과 물을 취할

때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우리 각자가 성찬을 집행하는 동안 “자기를 살피고”, “성스러운 것들에 관해 명상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가족에게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묻는다.

“**우현으로 표류하는 함선**”, 38쪽: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영적인 폭풍을 맞이하며, 이러한 폭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배를 우현으로 돌린다. 가족에게 배가 표류하기 시작할 경우 배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나의 영감 받은 선교사 부름**”, 15쪽: 한 선교사가 그의 부름이 영감 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한 가지 이유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함께 읽는다. 식구 중 한 사람이 선교 사업을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영감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강화한 선교 사업의 경험을 말하도록 부탁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42쪽: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가 하아페바를 방문했던 기록을 읽는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나눌 신앙이 있는지 묻는다. 가족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을 상상해 보게 한다.

“**우리를 따름**”, 친2쪽: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다.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부모에게 이야기함, 옳은 것을 옹호하는 일과 같은, 무리를 따르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 말한다.

“**데이비드의 기도**”, 친8쪽: 자녀들에게 무서워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도 어린 데이비드처럼 기도를 드리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상호부조회, 26, 28
가르침, 1	선교 사업, 8, 15, 32, 44
가정 복음 교육, 7	성신, 32, 38, 친8, 친12,
가정의 밤, 1	친14
가족, 2, 38, 친4, 친10,	성약, 2, 26, 28
친12	성찬식, 10
간증, 친6	신권, 2
결혼, 2	신앙, 42, 친4, 친10
교회사, 47	예수 그리스도, 10, 25
극기, 25, 37	용기, 친2, 친8, 친12
기도, 16, 24, 38, 친4,	용서, 38, 친4, 친10
친8, 친10	우정, 8
담합, 26, 28	음악, 10
데이트, 44	지도력, 28, 47
모범, 8, 34	청녀, 26, 28, 34
물몬경, 47	초등학교, 친4
방문 교육, 25	표준, 34, 44, 친2
보호, 친4, 친8, 친14	회개, 37, 친4, 친10
봉사, 38	
부모의 역할, 2	
사랑, 25, 26, 28	



# 아버지, 어머니, 결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최** 근 우리 사회는 암에 걸린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족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바로 가정의 붕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 말씀에 어느 누구도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여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의 생애에서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력이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개가 어머니인 편부모들은 특히 영웅적인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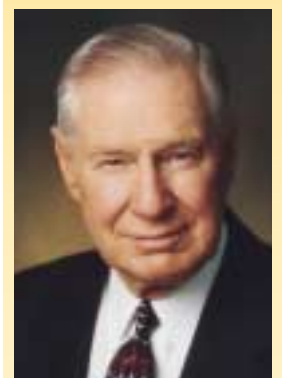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 학대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너무 많으며 이들로부터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 문제 연구 보고서에서는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자녀의 생애에서 자상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가정과 가족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 문제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나 비행의 상당 부분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포기한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 빈곤, 범죄, 마약 복용 및 가족 붕괴의 원인은 남자로서의 보살핌을 주어야 하는 아버지가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회에서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아버지라는 위치가 가족의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아내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sup>1</sup>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남편의 몫임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모든 자녀는 장성할 때까지는 양친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sup>2</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복지도 “선조의 신앙과 성약으로 말미암아”<sup>3</sup>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 관해 주님은 “아버의 뜻에 따라 더욱 큰 일을 요구할”<sup>4</sup>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보완하는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지를



저는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족 생활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나 여자나 자녀 모두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성한 역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신생아나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자녀의 성장기에는 부모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일을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준비하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어머니는 주로 자녀들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도록(현세나 내세 모두)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가족의 울타리 바깥의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분입니다.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녀가 자존심을 갖게 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이 도덕적인 절제와 한계를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의 역할 확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로서 관여하게 되면 자녀들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모두 다 성에 대한 인식이나 인격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가족 생활에 적극적일 때 아들은 남성다움을, 그리고 딸은 여성다움을 더 잘 표출하게 된다.”<sup>5</sup>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든 부모는 자녀들의 생활에서 자녀 개개인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의로운 영향을 미치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다른 훌륭한 피조물인 남성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여성에게 줄 수는 없겠습니까? 1872년에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오늘날에도 한 가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및 정치적인 지위는 인정 받아 마땅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부여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변덕이나 공상이나 정의 외에는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대신 비난하거나 조롱해 버리는데, 이것은 곧 자기가 논박할 수 없는 올바른 원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여성을 남성의 적대자로 분류하여 남성과는 정반대인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고, 여성이 철저히 독립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극단적인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이 보여 주는 더욱 비난할 만한 형태를 따르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여성들에게 따르게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는 전형적인 극단론으로서, 그 양자 사이가 곧 ‘중용’이라는 것입니다.”<sup>6</sup>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신생아나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마련입니다.**

### 신권의 활용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인 가정을 위해 중요한 권능을 세우셨다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권능을 우리는 신권이라고 부릅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것을 행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신권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의 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 신권의 권능은 가정 복음 교사나 정원회 회장, 감독이나 지부장, 혹은 가장이나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기타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권은 의로운 힘과 영향력이며, 소년들은 이 신권으로 청소년기뿐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 순결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여성의 미덕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신권은 절제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신권의 영향력과 축복의 권세를 통하여 소망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신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께서 보여 주신 부모로서의 모범을 닮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자신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정절을 지킴으로써 신권을 영예롭게 보호해야 합니다. 또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영원토록 돌보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반역한 아들에 대한 다윗의 탄식은 경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야”<sup>7</sup>

저는 이 교회의 남편과 가장이신 여러분에게 부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여길 만큼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교회의 자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남편을 인내하고 사랑하며 이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이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행복한 결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감정을 파괴해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sup>8</sup>

#### 한 마음이 됨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보다 마음과 정신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고마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라고 진지하게 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내적인 조화는 원숙한 결혼 관계의 중요한 요소인 용서와 잊어버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으라고 혹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sup>9</sup> 참된 사랑은 결혼 생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곧 매일 다시 쌓아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거부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의 신성한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곧 딸의 아름다움과 아들의 남성다움이 싹트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항상 얼마간의

**신** 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것을 행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신권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의 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진: 김창영, 용인대학교

**아** **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맺어지는 가족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조직입니다  
그것은 지리나 문화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부 결혼이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혼이든 그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약을 깨뜨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결혼식에서 남자와 여자가 맺는 약속은 어떤 것이든 준엄한 성약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맺어지는 가족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조직입니다. 그것은 지리나 문화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결혼은 영원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성약 가운데서도 가장 성스러운 성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신 인봉의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은 약속의 당사자가 되십니다.

평생 동안 인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무엇이

성약을 깨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사실 저는 “정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도 권능도 갖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혼 당사자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약들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는 일련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이유”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오래되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관계처럼 아주 심각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저는 성스러운 결혼 성약을 깨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강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정신적인 갈등” 때문이라거나 “성격 차이”, “성장 환경이 달라서” 혹은 “사랑이 식어서”라는 따위의 것들은 결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신성한 권고를 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sup>10</sup>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환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sup>11</sup>

### 가장 효과적인 치유

저는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족 생활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나 여자나 자녀 모두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성한 역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으로 인해 교회 회원간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촉진될 것입니다. 말라기가 언급했듯이 엘리야에 의해 회복된 위대한 인봉의 열쇠는 이런 방법으로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는 데 적용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sup>12</sup>고 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대관장은 엘리야의 열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엘리아에게 부여된 이 인봉의 권세는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묶어 주고 자녀를 부모에게 묶어 주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의 의식에 존재하는 결봉의 권세인 것입니다. ... 와서 그 권세를 회복하여 혼란과 무질서의 저주가 하나님의 왕국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sup>13</sup> 혼란과 무질서 모두 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에 의해 부여된 이 권세를 성스러운 장소에서 집행되는 공식적인 의식과 연관된 것쯤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적용될 때에만 힘이 있고 생산적인 것이 됩니다. 말라기는 엘리야의 권세가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란 곧 감정이 자리를 잡는 중심이며 계시를 받아들이는 중심입니다.<sup>14</sup> 이러한 인봉의 권세는 가족 관계나 좋은 환경에서 잘 개발된 성품과 덕성, 또는 사랑에 바탕을 둔 봉사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족을 함께 묶어 주는 끈이며, 신권을 통해 촉진됩니다. 감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영육을 적실”<sup>15</sup>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버지가 존중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경외하는 신권의 축복을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암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이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성스러운 영향력으로 가족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주

1. 교리와 성약 83:2.
2. 교리와 성약 83:4.
3. 교리와 성약 84:99.
4. 교리와 성약 29:48.
5. 칼 진스마이스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가?”(1992년 6월 19일, 가족 탐구 회의에서 행한 말씀).
6. “Woman’s Status(여성의 지위)”, *Woman’s Exponent*, 15 July 1872, 29쪽.
7. 사무엘하 18:33.
8. 마태복음 19:5~6.
9. Magdeleine Scudery, in John P. Bradley and others, comps.,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oughts*(1969), 472쪽.
10. 에베소서 5:25.
11. 디도서 2:4.
12. 교리와 성약 110:15; 또한 말라기 4:6 참조.
13. *Elijah the Prophet and His Mission*(1957), 5쪽.
14. 말라기 4:5~6 참조.
15. 교리와 성약 121:45.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다.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로 시작되는 단락을 읽는다.(*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어떻게 가족 각자와 하나님의 각 자녀가 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지 묻는다.

2.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메시지에 있는 “한 마음이 됨”으로 된 제목에서 세 번째 단락을 읽는다. 가족에게 성전에서 어떤 성약을 누구와 함께 맺었는지 묻는다. 영원한 결혼 성약의 성스러운 본질을 강조한다.

3.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 가족 생활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읽는다. 그런 다음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가장 효과적인 치유”라는 제목 아래 있는 첫 번째 단락을 읽는다.

# 벽에 걸려 있는 금언

제레미 로버트슨

“**친**구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언젠가 그대는 친구를 닮게 될 것이므로 나는 벽에 걸려 있는 이 글귀를 아무 생각도 없이 수없이 읽었다. 그것은 그저 의도적으로 우리 집 벽에 걸어 놓은 명언과 인용문들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식탁 바로 위 벽에 있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방에 모였다. 데이트, 심야 영화, 간단한 점심 식사 등은 거의 모두 부엌과 관련이 있다. 엄마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에야 나는 엄마가 거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내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교회 회원이었다. 우리는 함께 교회와 학교에 다녔으며 대부분 거의 같은 시기에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났다.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혼을 했으며, 그는 이혼한 부모와 친구들의 집을 번갈아가며 지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약간 소외되고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머리를 길게 길렀으며 한쪽 귀에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좋아했으며 그는 우리 친구였다.

고등학교 때 우리는 그가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다. 그는 만 19세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선교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름장을 받았다. 두어 달쯤 후에 우리는 그토록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몹시 추운 1월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것은 우리가  
매일 읽는 장소에  
걸려 있었으며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모여 이 친구가 성찬식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특별 찬송을 부탁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단상에 앉아 있었다. 회중을 내려다보면서 친구와 가족들을 보니 정말 멋진 모습이었다. 내 친구가 연단으로 걸어나갈 때 그의 눈은 약간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한 친구네 집 식탁에서 여러 번 먹은 음식 때문입니다. 그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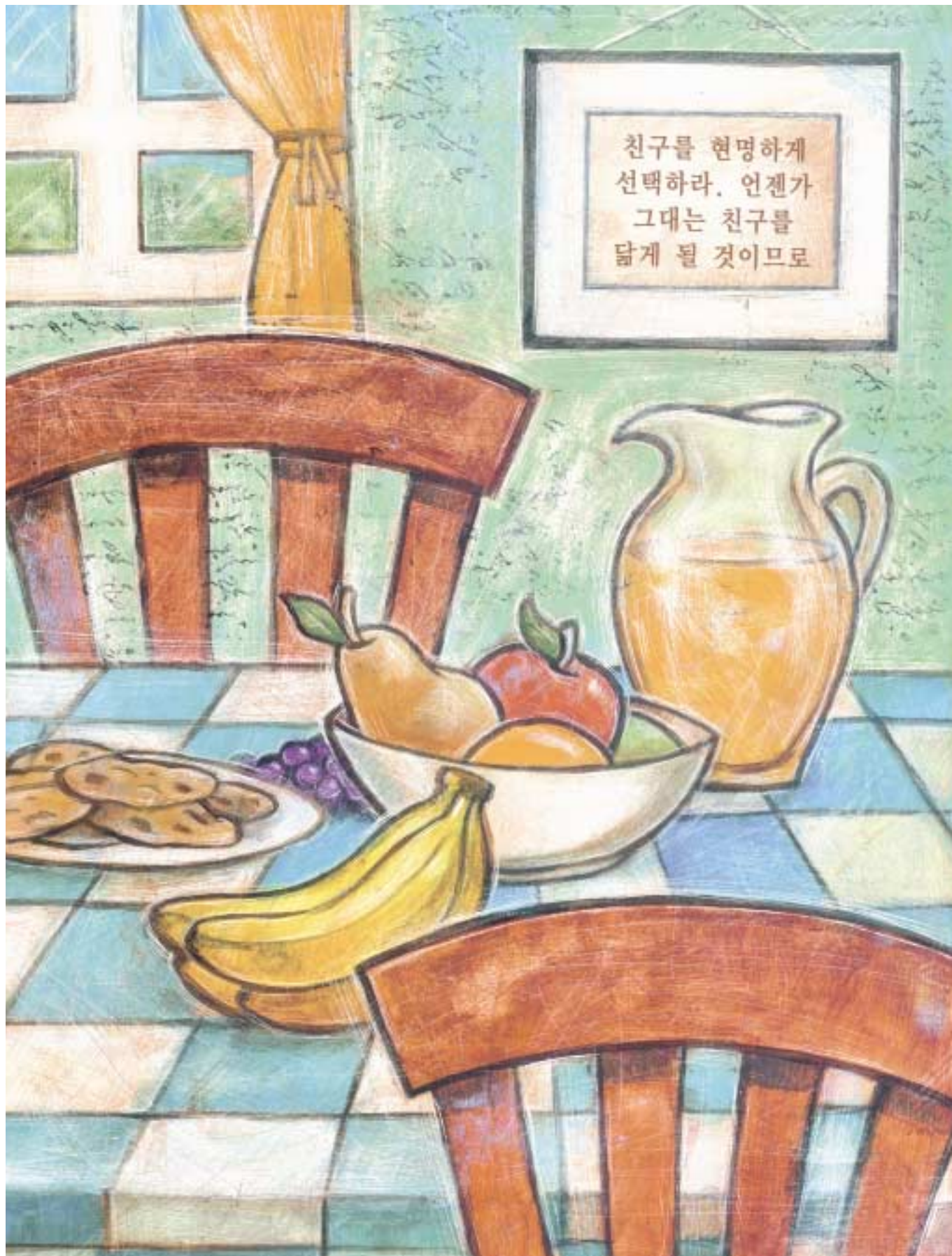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언젠가 그대는 친구를 닮게 될 것이므로’ 저는 그 친구들의 영향과 우정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곳에 있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회중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로, 나 역시 친구들이 내 인생에 끼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모범이 아니었다면 내가 선교 사업을 했을지 알 수 없다. 그 훌륭한 친구들로부터 받은 힘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런지도 알 수가 없다. 그 일에 대해 나는 친구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다.

나는 아무도 그 연단에서 들은 메시지를 잊어버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 금언은 아직도 우리 주방 식탁 위에 걸려 있다. ■

제레미 로버트슨은 유타 프로보 그랜드뷰 스테이크 그랜드뷰 제19와드 회원이다.





# 성찬식 예배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감** 독단과 지부장단은 갖고 있는 책임들 중 많은 책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 모임을 감리하며, 따라서 이 모임의 영과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성찬식에 관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히 감독, 지부장 그리고 보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며, 아울러 매주 예배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도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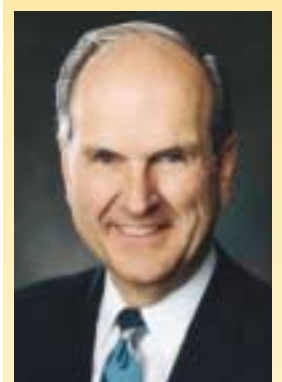
## 교리의 기초

성찬식은 우리가 교회의 기본 단위 조직인 가족과 함께 참석하는 와드 또는 지부 모임입니다. 가족과 회원들은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모임에

참석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속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마지막이자 특별히 준비된 유월절 만찬이 끝나 갈 무렵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받아서 먹으라”(마태복음 26:26)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사도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 그런 다음 그분은 잔을 들고서 감사의 축복을 하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누가복음 22:20)으로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 흘리는”(마태복음 26:28)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주위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 [전하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1:25~26) 이같이 그분은 다가올 그분의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성찬을 연관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저는 성찬식과 그것이 제 인생에 가져다준 모든 의미에 대해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거듭해서 저의 신앙이 다시 불타도록 해주었고, 제가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불사불멸은 현실이 되었으며, 지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속죄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성찬식에 옵니다. 그것은 안식일 준수 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교리와 성약 59:8~13 참조)  
 성찬 기도는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는  
 두려움을  
 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성약과 그에 따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성약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기억하기 위해 떡을 취하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증거합니다. 그에 따른 약속은 우리가 항상 그분의 영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찬식 계획**

이러한 교리를 염두에 두고, 감독단과 지부장단은 주님과 그분의 속죄, 모범, 그리고 복음의 교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성찬식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말씀 지명은 미리 해야 하며 거기에는 도와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할당된 시간과 지정된 주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주 기회를 갖지 못하는 회원들에게는 기도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같은 모임에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도록 지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홀로 사는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는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출발하는 선교사에게 성찬식에서 말씀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는 말씀 지명을 하지 않습니다. 두 명 이상의 선교사가 출발할 때에는 같은 성찬식에서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롭게 봉사하고 귀환한 선교사는 성찬식에서 반드시 말씀하도록 권유해야 하며 영적인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청소년들이 지정된 복음 주제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때로 고등 평의원이 스테이크장의 지명을 받아 말씀하게 됩니다.

회원들에게는 영접자와 안내자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려는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리에 편히 앉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뒷자리와 통로쪽 자리 몇 석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 놓아야 합니다.

비디오와 오버헤드 프로젝터와 같은 시청각 자료들이 성찬식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회원들이 질병 때문에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권 소유자들은 감독이나 지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그런 회원이 머무는 곳에서 성찬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식에는 다음 순서들이 포함됩니다.

- 전주 음악
- 감리 역원이나 지명된 경우 고등 평의원에 대한 환영 및 소개.
- 개회 찬송 및 기도
- 다음과 같은 와드나 지부 행사
  - 와드 역원 및 교사에 대한 해임과 지지





— 초등학교에서 진급하는 어린이들, 선교 사업 또는 다른 임무 지명에 부름 받은 회원, 청남 및 청년들의 달성사항 등의 발표

— 아론 신권을 받거나 승진하는 형제들의 이름, 새로운 와드 회원들의 이름 발표.

- 새로운 회원의 확인
- 성찬 찬송과 성찬 집행
- 복음 메시지 및 특별 음악 순서
- 폐회 찬송 및 기도
- 후주 음악

해임되고 지지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룹으로서, 즉 처음에는 해임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신권 성임을 위해 지지되는 사람들과 보조 조직에서의 부름에 대해 지지되는 사람들로 나누어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식은 제시간에 시작되고 끝나야 하며 또 무리하게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찬식 전에 기도 모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모임 시작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정숙한 짧은 시간 동안, 전주가 연주됩니다. 이 시간은 대화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도자와 회원들이 성찬식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 음악

교회 찬송가는 예배 의식을 위한 기본 음악이며 또 회중 찬송의 표준입니다. 다른 적절한 음악이 전주와 후주, 합창, 그리고 특별 음악 순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회 찬송과 폐회 찬송은 대개 회원들이 부릅니다. 성찬 찬송은 항상 회원들이 부릅니다.

이상적인 것은, 주기적으로 노래를 부를 단위 조직 합창단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합창단은 생활에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벨슨 자매와 저는

여러 해 전에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작은 우리 지부 합창단에 참여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러 앞으로 나왔을 때, 합창단의 수가 회중의 수보다도 많았습니다.

피아노, 오르간, 또는 전자 오르간은 교회 모임에서 사용되는 표준 악기입니다. 다른 악기가 사용될 경우, 모임의 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악기와 타악기처럼 소리가 시끄럽거나 경건성을 떨어뜨리는 악기는 성찬식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오르간, 또는 반주자가 없을 경우, 적절한 녹음 음악이 반주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인의 노래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교리와 성약 25:12 참조) 어떤 회원들은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성찬식에서 음악은 예배를 위한

**우** 리는 떡을  
취할 때  
그분의 몸을  
기억하며 물을 마실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억합니다.

것이지, 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스러운 음악을 제쳐놓고 세속적인 음악이 그것을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성찬식 사회

감독단과 지부장단은 성찬식 모임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사회할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경건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미세한 속삭임과 교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속삭임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건은 계시를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임을 사회하는 사람들은 정중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상세한 공지 사항은 다른 시간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친구와 이웃들을 항상 환영하되, 그들이 성찬을 취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항상 환영 받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속죄의 혜택을 받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훗날 인생에서 맺게 될 성약을 준비하면서 성찬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은 항상 영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46:2 참조) 때로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경우, 사회자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명확하게 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연사가 말씀을 한 후에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해서는 안 됩니다.

### 성찬 집행

감독단과 지부장단은 와드와 지부에서 아론 신권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정원회 고문과 함께, 모임을 하기 전에 성찬이 준비되고 또 성찬 전달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보이도록 하며 또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 셔츠는 단정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얀 옷을 입는 침례식이나 성전 의식과 같은 다른 성스러운 의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찬을 축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성약을 말로

**각** 회원은 성찬식에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성찬 축복의 특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정결함과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성찬은 감리 역원이 먼저 취합니다.

### 금식 간증 모임


금식 간증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대체로 첫 번째 일요일에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이날 축복을 받습니다. 성찬을 취한 후에, 사회를 하는 형제가 먼저 짧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회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구세주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회복에 대해 짧게 간증할 것을 권유합니다. 부모와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이 간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간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배우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금식 간증 모임에서 적절한 간증을 전할 만큼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가정이나 초등학교에서 간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개인적인 참여

각 회원은 성찬식에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기도나 간증이 끝날 때에는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아멘” 하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겐세마네에서의 고난과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이 지닌 중요성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 때에 우리는 각자 “자기를 살피고”(고린도전서 11:28) 주님과 맺은 개인적인 성약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들에 관해 명상해야 합니다.

저는 성찬식과 그것이 제 인생에 가져다준 모든 의미에 대해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거듭해서 저의 신앙이 다시 불타도록 해주었고, 제가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해주었으며, 넬슨 자매와 제가 복음의 영화로운 빛 속에서 생활하고 또 가족을 양육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2003년 6월 21일에 개최된 전세계적인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행한 말씀에서 발췌



# 나의 영감 받은 선교사 부름

## 링컨 피멘텔 마틴스

**브**라질인인 나는 브라질이나 남미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텍사스 휴스턴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놀라움은 곧 깊은 감사로 바뀌었다.

첫 임지에 도착한 지 나흘이 지났을 때 그 와드의 감독님은 동반자와 나에게 백혈병을 앓고 있는 노엘 스티븐슨 형제라는 연로한 회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보자고 했다. 스티븐슨 형제를 만난 나는, 그가 포르투갈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1950년대에 브라질에 있는 선교부에서 봉사했다고 했다. 그는 파라나 주에 있는 폰타 그로사를 비롯하여 그가 봉사한 여러 도시를 언급했다.

“폰타 그로사에 계셨다면 라울 피멘텔을 아십니까?”라고 내가 조금하게 물었다.

그는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소. 라울을 아다마다요. 내가 침례를 주었소.”라고 말했다.

나는 스티븐슨 형제에게 라울 피멘텔이 나의 외할아버지이며, 가족 중에서 최초의 회원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 다음 나는 외할아버지가 84세가 되었으며, 아직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 8명의 자녀가 모두 활동적이며 성전에서 결혼을 했고, 그들 중 다섯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30명이나 되는 손자들 역시 모두 활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님의 영은 내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 주셨다.

외할아버지는 두 명의 미국인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는 그 중 한 장로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스티븐슨 장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그 분에게 침례를 준 선교사를 만났다는 것을 아셨을 때, 몹시 기뻐하셨다.

할아버지는 스티븐슨 형제와 거의 매주마다 이메일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메일이 중단되었다. 나는 전화를 받고 노엘 스티븐슨 형제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물론 슬펐지만,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드렸다. 이 경험은 내가 더욱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 주었으며 선교사의 부름이 영감에 의한 것이라는 간증을 강화하도록 해주었다. ■

링컨 피멘텔 마틴스는 유타 주 오림 레이크뷰 스테이크 레이크뷰 제4와드 회원이다.

# 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쓰는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고양시켜 준다고 느끼십니까? 향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현** 재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때는 하늘의 처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필멸의 세계로 와 계속해서 진보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겪게 될 헤어짐은 정말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장막이 우리 눈을 뒤덮고 우리 삶에 대한 찬란한 기억이 필멸의 세계의 망각 속에 덮이게 된다는 점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까이 머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분을 찾아서 이야기만이라도 나누겠다는 서약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를 향해 오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을 때, 그분과 우리의 헤어짐에 따른 슬픔은 의심의 여지없이 누그러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곳에 있습니다. 전세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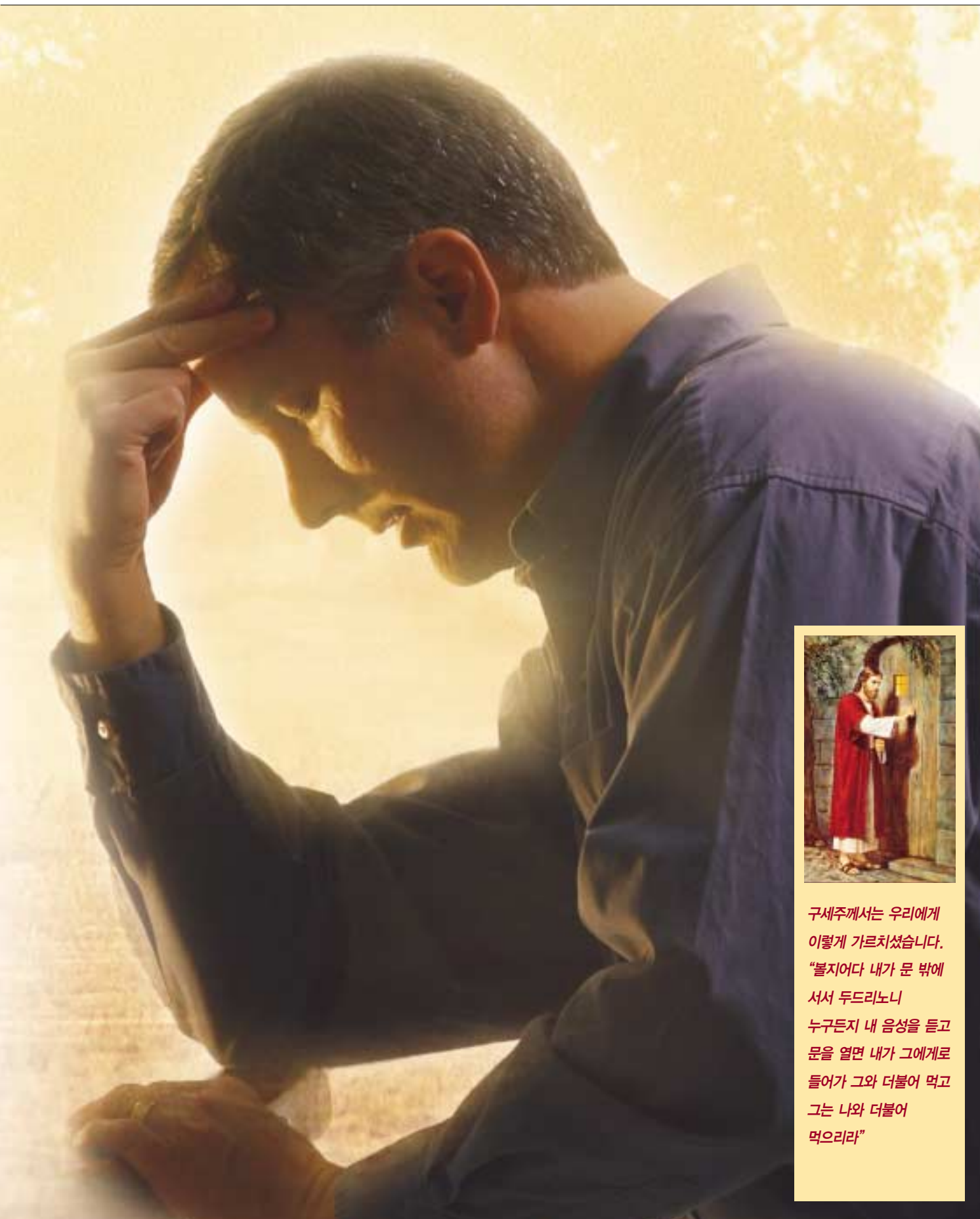
우리의 기억은 희미하고 애매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불행하고 또 슬프게도 우리가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조차 때때로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이 필멸의 삶에서 그분께 닿으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쓰는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고양시켜 준다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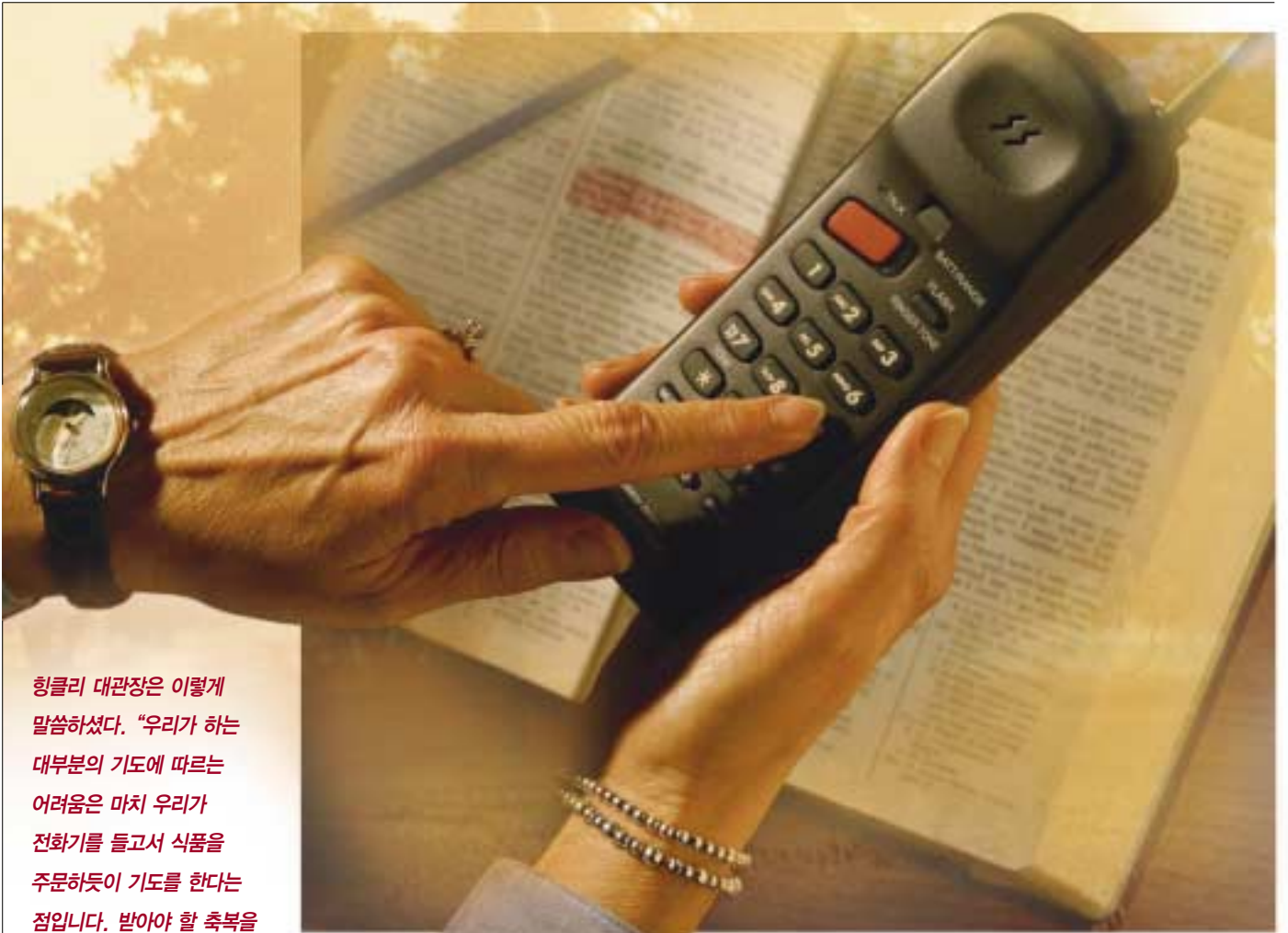
## 의미있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힘이 부족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타성적입니다. 기도의 말이 의사소통이 아니라 단지 열거가 될 정도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자주 사용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구세주께서 “중언부언”(마태복음 6:7 참조)이라고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기도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에 따르는 어려움은 마치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서 식품을 주문하듯이 기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받아야 할 축복을 꼭 주문하고는 전화를 뚝 끊듯이 기도를 끝냅니다. 우리가 기원하고 또 요청하는 것에 관해 명상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처럼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에 따르는 어려움은 마치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서 식품을 주문하듯이 기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받아야 할 축복을 꼭 주문하고는 전화를 뚝 끊듯이 기도를 끝냅니다. 우리가 기원하고 또 요청하는 것에 관해 명상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처럼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sup>1</sup>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똑같이 들린다고 느껴집니까? 기도를 기계적으로, 즉 기계에서 잘려져 쏟아져 나오듯이 말을 내뱉으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싫증을 느끼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를 끌 가치가 있을까요? 자신이 상투적인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 잠시 동안 명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찾아

보십시오. 대단하거나 눈부신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가 올 것 같은 징후, 좋아하는 음식 냄새,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과 같은 작고 간단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치유하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표와 소망과 꿈을 주님께 가져가 그분 앞에서 그것들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와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간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을

그분께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을 그분 앞에서 정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노력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곡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엘마서 34:24 참조), 우리가 직면하는 다른 중요한 어려움들에 관해서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유창할수록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럴지 몰라도 전능하신 분의 귀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경건하고 겸손하게 그분께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세련되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그리 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에 관해 신경을 쓰십시오.

### 신앙으로 하는 기도

많은 기도에 그다지 힘이 없는 또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섭니다.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의 힘과 연결되어 증대된 이해력과 소망과 권세를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세상이 신앙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의 의로운 소망을 신앙으로 창조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확신과 철저한 행함이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권세는 행동으로 활성화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에 대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사적인 일입니다.

그분과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언제 했는지 압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변영에 따른 어려움

우리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변영에 따르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들이 이 나라에서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 이 백성들은 조롱과 약탈, 가난 및 온갖 박해는 이겨 내고 참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보다 큰 두려움은 그들이 부유함을 이겨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sup>2</sup>

변영은 영적인 것에 대해 우리를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배고플 때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추울 때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듭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어리석음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권세에 관해 또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분에 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이러한 현대의 우상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교리와 성약 1:16)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를 향해 오시겠다고 그 분이 약속하셨을 때, 그분과 우리의 헤어짐에 따른 슬픔은 의심의 여지없이 누그러졌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의 부에게 소리치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그들 금붙이의 차가움을 배우고 또 그들이 걸었던 길이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사랑의 필요성

우리의 기도에도 힘이 없는 또다른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궁핍하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앨마서 34:28)

우리 주위에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는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은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타인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25:31~46 참조)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우리가 궁핍할 때에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 기도의 유형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적극적인 기도와 행동에 대해 영감에 찬 과정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키우고 기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따라야 할 유형이 되는 단계별 과정입니다.

“불평(초조해)하지 말며”가 첫번째 단계입니다.(1절 참조) 초조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관해 걱정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첫번째 것은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관해 걱정할 때, 현시점에서 불행을 만듭니다. 의로운 근심은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관해 걱정하는 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의기 소침하게 만듭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런 다음 그 걱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옳다면, 그분께서 걱정과 두려움을 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초조해)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3절 참조) 왜 우리는 그분을 의뢰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고 또 모든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행동이 우리 말에 대해 살아있는 간증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안전을 위해 여러 차례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이스트 고등학교에서는 쿼터백으로 그리고 유타 대학교에서는 러닝백 선수로 뛰었습니다. 선수로 있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제 안전을 위해 기도를 멈추신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은 시합을 하는 동안 큰 부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지했습니다. 타박상과 멍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큰 부상을 당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시즌 동안 축구장(여주: 미식 축구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기 위해 저의 사랑하는 매리온 지 롬니 감독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없던 짧은 시즌이 끝나자 저는 독일-오스트리아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츠부르크에 도착한 지 석 달 후에 선교부 명칭이 스위스-오스트리아 선교부로 바뀌었습니다.

1937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안술루스(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통합)를 빌미로 오스트리아 침공을 위해 300,000명의 병력을 국경에 집결시키고 있을 때 저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번영에 따르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들이 이  
 나라에서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  
 이 백성들은 조롱과 약탈,  
 가난 및 온갖 박해는 이겨  
 내고 참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보다  
 큰 두려움은 그들이  
 부유함을 이겨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가족을 모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저의 안전을  
 기원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영향력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분께서 제  
 생명을 지켜 주실 것임을 제 기도를 통해  
 믿었습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기 한 달 전에  
 저는 스위스로 이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이런 성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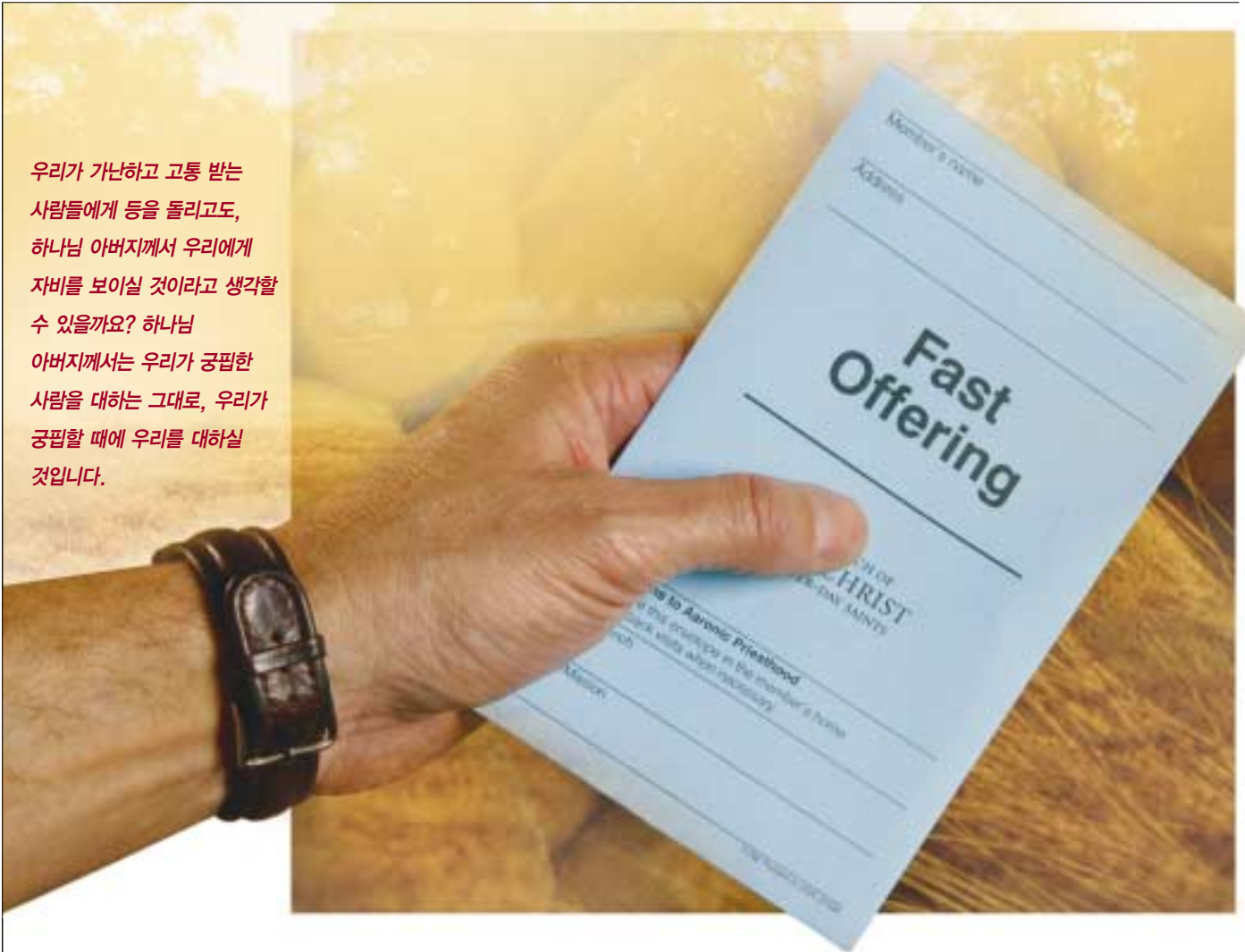
세 번째 단계는 “선을 행하라”(시편 37:3  
 참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분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합니다. 세상에  
 대해 빛의 역할을 하겠다고 거룩한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행동이 우리 말에 대해  
 살아있는 간증의 역할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로마서  
 3:23)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 신앙의 고백과 모순되면  
 모순될수록,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노력을 몇 배로 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우리가  
궁핍할 때에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또 여호와를 기뻐”(시편 37:4 참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교리입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 받지 못했다고 걱정하거나 투덜거리는 대신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때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방법으로, 때로는 도저히 미리 짐작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 모두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행복과 평화를 위한 얼마나 멋진 방법입니까!

다섯 번째 단계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5절 참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이든 기간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자매 여러분, 빛과 진리의 원리에 충실하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는 “여호와를 의지”(7절 참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며, 비록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이 그분의 시간에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 빛을 가져다주는 기도

겸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평온하게 부여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이런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버둥거립니다. 그들은 마음에 빛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한

때는 어두웠던 것들이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거룩한 숲에서 어둠과 빛을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1814~1901)께서는 자신의 한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약 2~3주쯤 되었을 때 ... 내가 아직 이 사업의 참됨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는 ... 매우 불편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책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집을 나와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밭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그러는 동안 형용할 수 없는 어둠의 구름이 나를 뒤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보통 하루가 끝날 즈음 은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 숙소에서 약간 떨어진 숲 속으로 가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영은 진작 떠났으며 하늘은 머리 위에 덮여진 낫쇠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평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항상 하던 기도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굳히고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하던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평소의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 막 입을 여는 순간에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명주옷 스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곧 이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려와 완전히 나의 전신을 뒤덮고 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내가 느낀 기쁨과 행복은 대단했습니다. 정신적 그리고 영적 암흑의 짙은 구름에서 빛과 지식의 광채로 즉시 변하는 것을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 나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거룩한 신권의 회복 그리고 충만한 복음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

“... 그날 밤 내가 쉬기 위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똑같은 기이한 나타나심이 반복되었고 연이어 며칠 밤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들에 대한 감미로운 기억은 온몸에 퍼지는 영감에 찬 영향력을 내게 전해 주며 그에 관한 지식들을 내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확신할 것입니다.”<sup>3</sup>

형제 자매 여러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오는 사람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어둠을 멀리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모든 사람은 기도를 통해 우리 생활에 찾아오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축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영화 배우라고 해서 근로자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왕이 앉는 보좌에 다가서는 능력이 있어서 평등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설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진리, 빛, 그리고 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에 대해 우리의 제자됨을 시작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한,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기도라는 면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음성을 높이고 우리의 영혼을 찬란한 빛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

2003년 1월 21일 프로보의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있었던 영적 모임에서 행한 말씀 주

1.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 469쪽.
2. *James S. Brown, Life of a Pioneer*(1971), 122~123쪽에서 인용.
3. *Eliza R. Snow Smith,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1884), 7~9쪽에서 인용.



**우리 행동이 우리 신앙의 고백과 모순되면 모순될수록,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노력을 몇 배로 크게 하십니다.**



#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마지드 에이 커크패트릭

**내**가 열두 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로 나 또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로 암에 걸렸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내게는 현실로 느껴졌다. 나는 그것에 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짐을 혼자 짊어졌으며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항상 밤에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으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면서 머릿속으로 내 기도를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한 특별한 때에 소리내어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내게는 다섯 형제 자매가 있었고 한 언니와 나는 침실을 같이 썼다. 학교에서 텅빈 집으로 왔던 어느 날 오후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소리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 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주님께 애원했다.

기도를 끝낸 그 즉시 평화롭고 강한 느낌이 나를 둘러쌌다. 그것은 마치 사랑스런 팔이 내 어깨를 휘감는 것 같았으며, 한 음성이 내게 “네게는 별 일이 없단다. 괜찮단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나는 큰 사랑을 느꼈고,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커다란 짐이 내 어깨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내게서 사라졌다. 그 시각 이후로 나는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 왔다. 그날 그랬던 것처럼 응답이 결코 신속하게 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교리와 성약 112편 10절은 이렇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예 응답해 주시리라.” ■

마지드 에이 커크패트릭은 솔트레이크 홀라데이 스테이크 홀라데이 제26와드의 회원이다.



## 극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

**기** 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요한계시록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한 위대하고 강력한 확신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을 때, 그때에 그는 ... 하나님에 살아 계시다는 것과, 자신은 영원하고도 끝없는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제하게 됩니다.”(“교회의 진정한 힘”, 성도의 빛, 1974년 2월호, 43쪽)

**엘마서 37:33:**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가르치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1907~1995):**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의 햇빛 속에서 밤의 어둠이 찾아 들고 유혹의 폭풍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하나님과의 언약”, 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87쪽)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생에서 우리의 육신이 유혹이나 시련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제심을 키운다면 육체의 욕망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극기”,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37쪽)

**엘마서 38:12:** “걱정을 다스려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며”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죄, 낙담, 실패, 연약함 때문에 발전해야 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의 따뜻한 위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이란 ... 용기를 북돋아 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시작을 해는 ...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나와 구세주와의 관계”,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56쪽)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제가 아는 한 여인은 그녀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로 힘겨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원한을 갖거나 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러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한 후, 그녀는 마침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명한 느낌이 제 몸 전체에 퍼지는 것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안전과 평화스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상관없이,



가족과 제가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제게서 떠났으며,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도 사라졌습니다.”(“생수가 주는 축복”,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3쪽)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1873~1970):** “여러분이 어느 누구의 감정도 해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서 깨끗한 양심으로 밤에 잠자리에 누는 시간은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 노력했고, 진지한 노력을 보였다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힘, 즉 악에 대항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Gospel Ideals [1954], 502쪽)

-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구세주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은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자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극기하는 데 어떤 성구나 말일의 예언자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 것을 변화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었는가?



# 두 번째 발걸음

... 청년회에서 상호부조회의 품으로 옮겨가게 되면 여러분은 그 곳에서 주님께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여성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새나 버틀러  
교회 잡지

**청**년 시절을 마치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훌륭한 조직이 있다. 그 조직에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욱 가깝게 나아갈 수 있다. 그 곳은 봉사를 통해 여러분이 좀더 구세주처럼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조직이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친자매와 다를 바 없는 자매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상호부조회가 바로 그러한 조직이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는 “상호부조회는 공과반 이상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 곳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성이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곳이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십니다. 그 분은 청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첫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상호부조회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자는 알고 계십니다.”

청년회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겨가는 일이 조금은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성장 과정”이라고 본부 청년 회장인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는 말한다.

태너 자매는 18세가 되었을 때, 상호부조회 회원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고 한다. 하지만 “두 개의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당연한 느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제게 꼭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시다.”라고 태너 자매는 말한다.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청년회와 상호부조회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상호부조회는 여러분을 환영할 것이며, 여러분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연령의 장벽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자매 관계를 발전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태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참된 자매 관계는 성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합시켜 줍니다. 우리가 차이점이 아닌 하나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 성약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강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남의 짐을 나누어 가법게” 하고 또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모사이야서 18:8~10)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부조회 말고 이런 일을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을까? 상호부조회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가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다.

여러분이 상호부조회 자매가 될 때, 청년회에서 얻은 여러분의 지식은 넓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약의 여성이 되는 것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파킨 자매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여성상은 상호부조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한다.

여러분이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상호부조회의 자매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여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상호부조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발견함**

“청녀에서 성인 여성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는 청녀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청녀들이 이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며 충실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갖게 될 책임을 위해 준비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든 비 횡클리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서한, 2003년 3월 19일

받지 않은 채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8)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청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는[위로를 받지 않은 채 남겨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헤어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게 될 것이고 그 원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고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과 선함을 자매 관계의 원에 더해 주고 또 사랑이 결코 시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

28쪽 참조) 태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으나, 그들과 항상 같이 있게 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위로를







# 상호부조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모, 지도자, 감독은 청년들이 상호부조회로 옮겨가는 과정을 돕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

러렌 포터 곤트  
교회 잡지

**보** 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와 본부 청년 회장인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는 그들이 한 팀이라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두 사람은 상호부조회와 청년 양쪽 모두에서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쪽 모두를 보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단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파킨 자매와 태너 자매는 청년들이 청년 프로그램에서 상호부조회로 성공적으로 옮겨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상호부조회가 안전한 곳,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키우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청년들에게 말한다. 청년들은 불가피하게 몇몇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겠지만 대신 그들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품 안으로 오게 된다. 친구들을 사귀는 그들의 원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발걸음”, 26쪽 참조)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권고한다. “편안함이나 안전을 느끼는 자신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행하고 청년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 곁에 앉아서 그들의 이름을 익히십시오.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함께 일하고 각 청년을 위해 그녀의 삶을 축복하고 청년이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 결정의 십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변화와 결정의 십 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 친구들 모두가 청년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 과정은 청년이 18세가 되기 전에 이미 잘 시작되어 상호부조회에 들어온 후에도 계속된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제 어머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친자매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분은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분의 모범은 제 인생에서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만일 모든 어머니가 상호부조회에 대한 간증을 딸에게 해준다면, 청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청년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할머니, 친구, 또는 자매는 그 청년과 그녀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또한 상호부조회의 좋은 점을 딸의 삶에 가져다주기 위해 딸을 격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파킨 자매는 말한다. “한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호부조회가 네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상호부조회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었고 너를 지금과 같은 모습의 청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란다.’”

감독이나 지부장,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청년 지도자들이 해야

## 상호부조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청녀를 도움



할 특별한 역할이 있다. 감독의 접견은 인생의 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청녀 지도자들은 감독과 만나 청녀 조직을 떠나게 될 청녀들에 관해 감독이 알도록 도움으로써 이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넘길 수 있다.

태너 자매는 청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한다. “부모들과 터놓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청녀들을 돕도록 지명 받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각 청녀의 재능을 알려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긍정적이 되십시오.”

### 스커트와 경전 공부

두 조직의 지도자들은 함께 일하여 우정을 쌓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한 와드에서는 청녀들이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했다. 그래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상호 향상 모임에서 각 청녀는 자신의 스커트를 만드는 일을 도와 줄 상호부조회 자매 한 명과 짝을 이루었다. 나중에 각 짝은 집에서 스커트를 완성했다. 그런 다음 청녀들은 자신들이 만든 각양 각색의 새 스커트를 입고 뽐내는 패션 쇼에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초대했다.

다른 한 와드에서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경전 공부 짝을 청녀들 가운데서 찾았다. 그들은 함께 읽고 서로의 발전을 점검했다.

첫번째는 청녀들이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다가간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청녀들을 찾아간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우정 관계가 계속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모사이야서 18:21)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다음은 지도자들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다.

1. 어머니들을 격려해 그들의 딸들이 상호부조회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게 한다.
2. 상호부조회의 보좌 한 명에게 청녀들이 성공적으로 과도기를 보내고 상호부조회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도와 주도록 특별한 임무를 준다.
3. 상호부조회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의미 있는 부름, 방문 교육, 그리고 자선 봉사 임무를 준다.
4. 청녀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서로 협력하고 계획하여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을 통해 자주 만나게 한다.
5. 상호 향상 모임의 활동에서 겸약한 생활, 가사, 그리고 복음 원리의 개인적인 적용을 강조한다. (2003년 3월 19일자 대관장단 서한에 있는 제언 참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동기와 선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 자매 관계를 조성함

자매 관계를 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파킨 자매와 태너 자매는 똑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침례에서부터 성전 인봉까지, 우리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킵니다.”<sup>1</sup>라고 태너 자매는 말한다. “성약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묶이게 됩니다. 그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자매 관계입니다.”

상호부조회를 다른 여성 조직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약을 지키는 일이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여성다운은 상호부조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신앙을 키우는 환경 속에서 함께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에게 나아옴

청녀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함께 서로에게 다가가고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그들의 자매 관계의 영역은 확대된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청녀의 삶에서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이 시기 동안,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감독으로서, 친구로서 우리는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청녀들은 우리의 삶에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

주

1. 청녀 주제,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5쪽.



### 우리의 상호부조회 유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왼쪽 위)는 말한다. “상호부조회는 예언자를 통해 설립되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시작에 관해 본부 청년 회장인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왼쪽 가운데)는 이렇게 말한다. “청녀에게는 훌륭한 모범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고귀한 말일성도 자매들이 그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최초의 상호부조회 모임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해 준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연령의 장벽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매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사람은 10대였습니다. 가장 나이드는 사람이 50대였습니다. 11명이 결혼을 했었고, 두 사람은 미망인이었으며, 여섯 사람은 미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조직의 시작이었고 우리의 기초였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닌 유산이 엄청난 힘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자매가 파킨 자매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이것에 관해 적었는데 거기에서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이 상호부조회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위대한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그 말일성도 여성들은 어떤 것을 취해 그것을 훌륭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제 핏속에 있습니다.”



# 귀기울여 들어줄 어떤 사람

엔고지 에프 오코로

룸메이트들과  
친구들은 복음을  
나누려는 나의  
노력을 무시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계속해서  
간구했다.

나 이지리아 이바단 대학교 기숙사의 어느 소란스런 저녁 시간이었다. 밖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찬 바람이 창문을 때렸다. 여러 가지 음악이 같은 층에 있는 많은 방에서 들려 왔고, 여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언니는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했고, 나는 기숙사에 남아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수프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페오마가 들어왔다. 그녀는 교정에서 만난 다른 교회의 선교사였다. 이페오마와 내 룸메이트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다. 그녀는 한동안 그들을 가르친 다음에 교회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룸메이트들은 그녀의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친구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참석해 보라고 했던 내 권유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터라 나는 실망했다. 내가 처음으로 권유했을 때 친구들은 나와 우리 교회를 비웃었다. 그 뒤로도 삼 년 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내가 보잘것없는 회원 선교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포기하지 마”라고 외치는 한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나는 복음에 귀기울일 사람을 학교에서 만나게 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안녕!” 하고 이페오마가 내게 주의를 돌리며 말했다. “요리하는 동안 이야기 좀 해도 되겠지?”

“네, 물론이죠.” 내가 대답했다.

“너는 거듭났니?”라고 그녀가 물었다.

“그래요, 그 말 뜻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거듭났다’ 라는 의미라면요”라고 내가 말했다.(요한복음 3:1~21 참조)

“흥미롭군.” 그녀가 말했다. “어느 교회에 다니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라고 내가 대답했다.

“몰론 맞지?” 그녀가 놀라며 물었다.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는 다른 성경을 사용한다던 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몰몬경이에요.”라고 내가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지요.”

“네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라고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라고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신앙개조와 몰몬경에 관해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에 관해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 다음 나는 간증을 하고, 누군가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몰몬경 한 권을 주었다.

“이 책을 내가 가져가라는 뜻이니?” 그녀가 물었다.

“그래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나는 책을 펼쳐서 니파이서서 25장 26절을 읽어 보라고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페오마가 읽기를 마쳤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매우 진지해 보였다. 내가 말한 것들이 참됨을 그녀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라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 일요일에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고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고마워, 엔고지.”라고 그녀가 말했다. “오늘 너와 이야기하는 동안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따뜻한 느낌을 가졌던 적이 한번도 없었어.”

그녀가 자리를 뜬 다음 나는 언니를 따라가지 않고 기숙사에 있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를 알았다. 나는 영의 인도를 받아, 드디어 기꺼이 귀기울여 듣고자 하는 누군가와 복음을 나누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

엔고지 에프 오코로는 나이지리아 이바단 지방부, 이바단 제1지부의 회원이다.



# 가치관을 위한 노래



리리엘이 자신의 가치관에 관해 말할 수 없었을 때, 그 가치관을 실천하여 얻게 된 청녀 메달이 그 가치관을 대신하여 말해 주었다.

자네트 엔 오크스

**라** 켈 “리리엘” 도미시아노는 수백만의 관중들 앞에서 노래를 하려는 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할까 봐 걱정했을까? 조금은 그렇다. 의상에 관해서도 걱정했을까?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당시 겨우 열아홉 살로, 교회에 온 지 5년이 되었던 리리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모사이야서 18:9) 증인이 되고 싶었다.

리리엘은 브라질에서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가장 큰 재능 경연 대회인 *Raul Gil Amateur Show*에 참가할 참이었다. 그녀는 종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브라질의 많은 말일성도들이 이것을 시칭할 것이라는 점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리리엘은 브라질 국내 공연(위쪽 맨 왼쪽)은 물론 물론 태버네클 합창단(위쪽 오른쪽)과 가진 여러 차례의 공연을 통해 증인이 될 많은 시간을 갖는다. 리리엘은 최근 발표곡 "당신을 믿어요"란 곡으로 토로페우 엠프렌사(브라질 그래미 상)를 수상했다.**

바랐다. 그녀는 최초의 공연이 있기 전에 방에서 기도를 한 후, 고개를 들고서 청녀 메달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그녀가 찾았던 응답이었다.

리리엘은 각급 경연이 벌어지는 동안 메달을 착용했다. 결국 그녀와 테너를 맡은 리날도 비아나는 대회에서 상을 받아 녹음 계약을 마쳤으며 자신들의 최초의 CD가 백만 장 이상 팔려 브라질 역사상 두 번째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의 그 즉시 리리엘과 리날도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리리엘의 성공은 오페라 소프라노로서 받은 성악 훈련을 포함하여 다년간에 걸친 준비의 결과였다. 그녀는 인생에 대해 준비시켜 준 청녀 프로그램에 그 공을 돌렸다.

### 영적 가치관을 배움

리리엘은 브라질의 다른 지방에 살고 있던 언니 파트리시아에게서 교회를 소개 받아 열네 살에 침례를 받았다.

리리엘은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언니가 집에 와 있는 동안 저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이었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표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신의 권세를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소개 받고 오래지 않아 리리엘과 여동생 프리실라는 침례를 받았다. 어머니 또한 그 뒤에 침례를 받았다. 리리엘과 프리실라는 청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리리엘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은 반에서 함께 지냈고 힘을 합쳤습니다. 우리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 목표 하나를 성취한 다음에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리리엘은 청녀 표창과 메달, 즉 그녀가 수백만의 관중들 앞에 달고 나가게 될 메달을 받았다. 그녀에게 그 메달은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청녀 메달을 받은 것은 큰 성취였습니다. 제게 그것은 성전 결혼과 가족을 위해 제가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모든 청녀들이 메달을 받기를 바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메달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달성했던 목표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에 대해 우리에게 가져다준 준비를 항상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공연을 하면서 메달을 착용하는 것은 그녀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성장하면서 리리엘(아래)은 노래하겠다는 꿈을 가졌다. 이제 자신의 가장 큰 꿈은 가족(오른쪽)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방법이였다.

### 일생의 가치관

이제 스물두 살이 된 리리엘은 교회에 들어온 이후 청년 가치관에 관해, 특히 신앙에 관해 많이 배웠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아주 어렸을 때에도 저는 항상 경전을 읽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에 관해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었습니다.”

리리엘은 성장하면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원했던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가족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점 때문에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거라. 너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라는 음성이 제 마음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하는 동안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힘든 시기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리리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많이 배웠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겸손하다면 그분은 제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제가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 항상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말일성도들뿐 아니라 브라질 전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녀는 여러 브라질 TV 쇼에 출연하여 좋은 출발을 했다.

### 훌륭한 가치관

리리엘이 좋아하는 성구는 잠언 31장 10절, 25~26절로, 청년 주제에 따라 생활하는 청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구이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각 청년가 [청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녀의 능력은 수백만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든 자기 방에서 증인이 되든 보석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

자넷트 앤 오크스는 브라질 남 지역 사무실에서 남편 조지와 함께 전업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

1. 청년 주제,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5쪽.



# 여러분의 행동을 정리하십시오



비누와 물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참된 깨끗함과 정결은 진정한 회개에서 옵니다.  
(교리와 성약 58:42~43 참조)

## 우현으로 표류하는 함선

아치 디 스미스

어느 날 저녁 내가 근무하던 미해군 구축함이 진주항을 떠나 북태평양을 향했다. 그날 나는 야간 항해 당직 사관이었다. 나는 야간

근무를 위해 저녁 식사 후에 잠을 청하고자 병크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배가 파도에 출렁대는 것을 느끼며 잠에 빠져 들었다. 임무 교대를 할 무렵, 파도가

훨씬 심해졌고, 갑판 위의 어둠 속으로 나서자, 매서운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북태평양의 한겨울은 상당히 거칠었다. 그날 저녁은 특히 바람이 세게 불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킬 만큼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다.

“근무 교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나는 보고했다.

그림: 로버트 에이 맥케이



그러한 파도가 배의 측면을 강타한다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두려웠다.

나침반의 부드러운 불빛이 당직 사관의 얼굴을 비쳤다. 그는 배의 진로와 속도를 보고한 후 또한 함장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한 시간 동안 기압계의 눈금이 0.03도나 떨어졌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태풍이 오고 있다는 의미였다.

“함장님도 알고 계십니까?”라고 나는 물었다.

“그렇다네, 하지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네.”

그는 조타실의 문을 닫고 나갔고, 나는 홀로 앉아 점차 거칠어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면, 장교들은 조종이 가능할 정도로 속도를 유지하며 배의 선수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파도가 배의 측면을 때리면, 배가 심하게 흔들려 선원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시간 정도 지나자 산만큼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거대한 파도의 포말들이 공중으로 날아 다녔다. 배는 다가오는 파도의 정면으로 올라가, 물마루에서 잠시 머물다, 급속도로 파도의 후면으로 미끄러져 내리더니 파곡 사이로 가라앉았다가, 갑판 위로 쏟아져 내리는 물을 헤치며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심하게 떨리며 앞뒤로 흔들렸다.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했다.

폭풍이 거세지자 기압계의 눈금이 또다시 0.05도나 떨어졌다. 나는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해 함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그저 “잘했네”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조금 후 조타수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우현으로 돌고 있습니다!” 나는 재빨리 나침반을 확인한 결과 선수가 파곡으로 천천히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만일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배의 측면이 파도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다. 나는 조타수에게 필요한 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침반 바늘이 다시 제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조타수가 다시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배는 신속히 따라 주질 않았다.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제 바람은 비명을 지르며 시속 160킬로미터의 속도로 불어 났고, 파도는 15미터 높이로 이는 상황에서, 배의 선수가 파도의 골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한 파도가 배의 측면을 강타한다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두려웠다. 나는 함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선체의 심한 요동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도 걱정을 했다. 그는 별다른 조언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라고만 했다.

조타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봤지만, 선수가 여전히 우현으로 틀어진다고 알려 왔다. 나는 해결책을 찾고자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완전히 절망에 빠졌으며 두려움에 땀이 나갈 정도였다. 가장 끔찍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무기력했고 완전히 겸손해졌다.

어린이와 같은 상태에서 나를 도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다. 나의 열렬한 간구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이고도 명료했다. 내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말했다. “엔진을 사용하라. 엔진을 반대로 사용하라.” 나는 즉각 그것을 이해했다.

나는 명령을 내렸다. “우현 엔진 전진 속력 삼분의 이, 좌현 엔진 전진 속력 삼분의 일.” 천천히 함선의 선수가 눈앞에 닥친 파도의 골을 벗어났다. 배가 파도를 향했을 때, 깊은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폭풍은 계속되었지만, 좌우현의 엔진을 가속하거나 감속하면서 배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회의론자들은 그 해결책이 줄곧 내 머리에서 나왔다고 말할 테지만, 난 분명히 알고 있다. 그 해결책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

아치 디 스미스는 유타 주 프로보시 에지먼트 스테이크 에지먼트 제4와드의 회원이다.

## 고통의 극복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됨

와싱턴 잠브라노

**도** 일 출신의 새 가족이 에콰도르 키토시의 푸수키 지부로 이사 왔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지부장은 성찬식 모임을 통해 푸쿠스 가족을 소개했다. 우리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성찬식이 끝난 후에 나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갔다. 그 가족의 장남인 안드레아스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앤더라고

소개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잊지 못할 유산을 남기게 될, 깊고, 진실하고, 영원한 우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 푸크스 가족은 지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나는 청남 회장이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앤디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봉사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일 먼저 왔다.

앤디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지상 부모의 인도로 인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앤디는 사랑과 인내로 양육되었다. 앤디와 그의 아버지인 호스트는 많은 활동을 함께했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이 모범은 열네 살밖에 되지 않은 앤디를 성숙하게 했으며, 앤디는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 앤디의 다양한 능력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다.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데 헌신적이었으며 교회에 관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앤디가 우리를 그토록 빨리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도 앤디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된 고통스런 토요일을 기억한다.

그날 아침 앤디는 한 언덕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그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해 보기로 결심했었다. 아버지의 허락을 얻은 후에, 앤디는 출발했다. 그러나 그가 자전거를 타고 산으로 올라갈 때, 나무를 운송하던 트럭이 산 아래로 비틀거리며 질주하고

있었다. 결국 그 트럭에 치어 앤디는 즉사했다. 밝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트럭 운전사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찰의 감시 아래 키토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린 그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르스트 푸크스를 통해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지부장과 나는 푸크스 형제와 함께 앤디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갔다. 이들의 죽음으로 힘겨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앤디의 생명을 잇어간 사람을 용서했다. 그는 마음에 적대감을 품기를 거부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는 병원에 있는 트럭 운전사를 방문하여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움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말해 주었다. 트럭 운전사는 집에서 회복되는 동안, 선교사들과 토론을 했고, 그 자리에 푸크스 형제도 함께했다. 푸크스 형제는 또한 그 운전사에 대한 처벌이 경감되도록 노력했다.

나는 푸크스 가족이 보여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생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다. 푸크스 가족은 참으로 특별하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안과 지지는 물론 위대한 힘이 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 눈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 지부 사람들은 앤디의 유산과 앤디 부친의

모범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신앙을 가져야 하며 매일같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앤디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신앙을 갖는다. ■

와싱턴 잠브라노는 에콰도르 키토 산타 아나 스테이크 산 후안 와드의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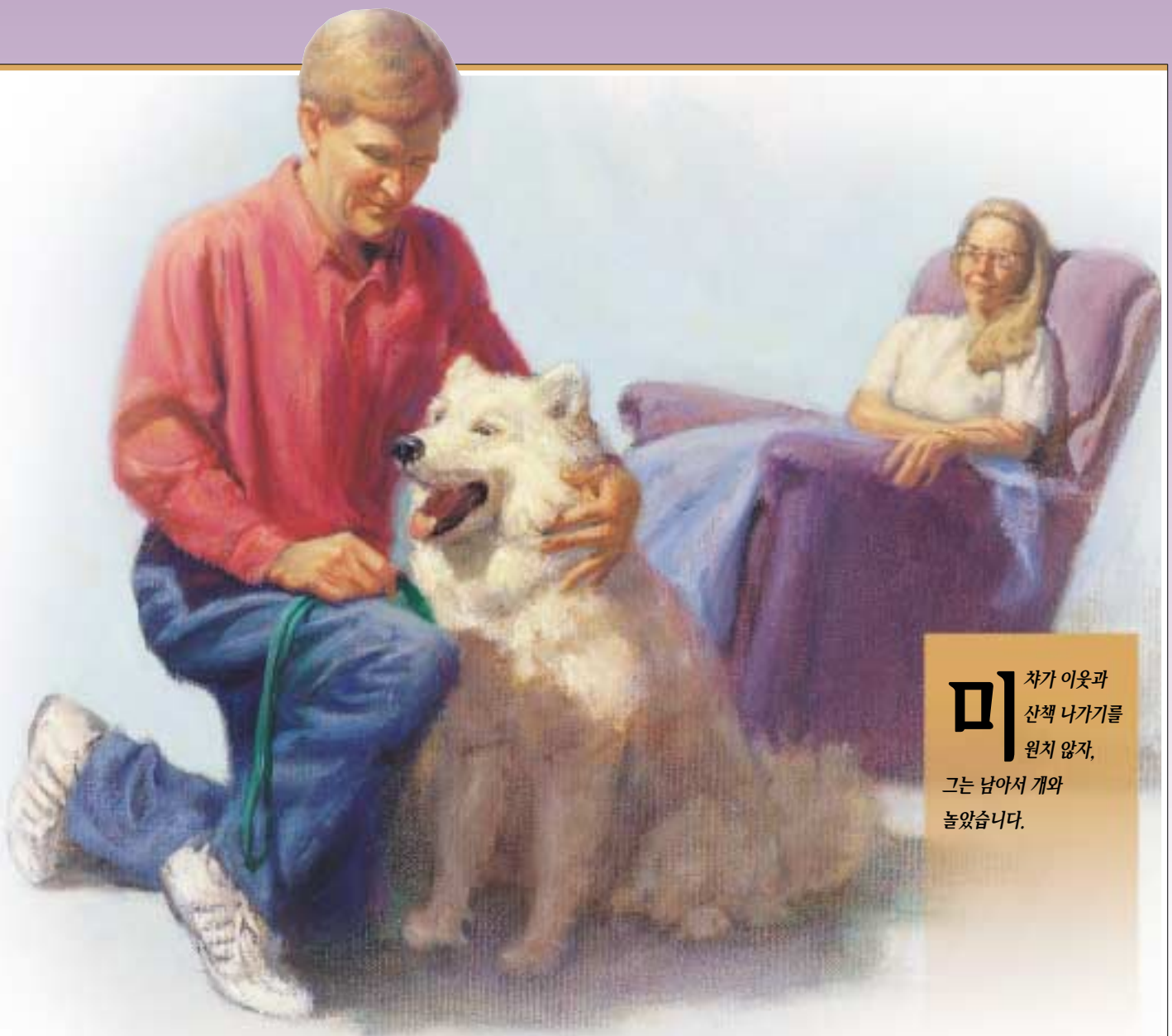
## 꼭 필요한 도움

마가렛 케이 크리스텐슨

저는 이웃이 보여 준 봉사의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알고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돕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기억할 만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립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1989년 봄에, 상황이 바뀌어 저는 새로운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귀환 선교사인 제 큰아들은 결혼하여 먼 곳에서 미해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고, 제 딸과 막내 아들은 2주 후에 선교 사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서모이어드 개미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매일 미차를 데리고 산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다 가고 나자, 그 일을 제가 맡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발뒤꿈치의 뼈돌출부를 잘라 내는 수술을 받기로 일정이 잡혀 있어, 수술 후 몇 주간은 걷는 것이 매우



**미** 차가 이웃과 산책 나가기를 원치 않자, 그는 남아서 개와 놀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선교사 훈련원으로 떠나기 전 얼마 동안 미차를 데리고 마지막 산책을 하던 어느 날 한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일 우리 개를 데리고 산책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웃이 산책을 시키려고 온 첫날 밤에, 미차는 낯선 사람이 왔기에 따라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집에 머물며 15분간 같이 놀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도 와서 놀아 주며 가까워졌지만 미차는 여전히 산책하러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삼 일째

되던 날 저녁에 미차는 따라 나섰고, 그 이후로는 매일 저녁 새 친구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수술 받은 발이 완전히 회복되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도, 이웃은 계속해서 미차를 데리고 산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일주일에 세 번씩 밤근무로 바빠지자, 대신 그의 아내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일년 반 후 제 딸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훌륭한 이웃은 다른 곳으로 갔다 온 삼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밤 적어도 한 시간씩 미차를 데리고 산책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547시간의 봉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웃이 영을 느꼈다고 확신하며, 제 필요 사항을 알고 해결해 주려 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들에게 부탁할 만한 성질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 당시에 제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모사이야서 18:8)라는 엘마의 권고를 따른 이들 이웃은, 제 마음속에 언제나 남을 사랑이 넘치는 봉사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

마가렛 케이 크리스텐슨은 유타 주 미드베일 스테이크 미드베일 제5와드 회원이다.

#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로널드 티 할버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폴리네시안들은  
단순하며, 깊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으면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태평양 제도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며, 섬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자녀들을 만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번은 통가에서 지방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섬에서 섬으로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에 아내와 통역사, 선교부장과 그의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섬에서 섬으로 가기 위해 배를 이용합니다. 하이파이와 하이페바 사이를 오가는 이 선박 여행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이페바에 도착하자, 성도들이 해안가에 줄지어 서서 우리를 맞이하며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신발을 벗은 채,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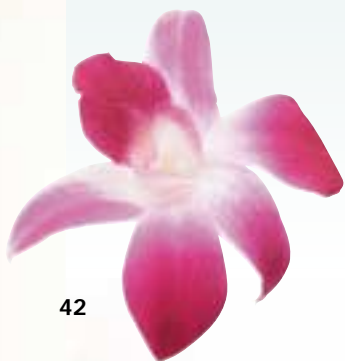
우리는 곧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에서는 지붕에서 흐르는 빗물을 통에 받아 식수로 사용합니다. 섬사람들은 이렇게 모은 물을 마십니다. 만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심한 가뭄을 겪었음에도, 그들은 그날 오후 저녁 식사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음식을 나눴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구나!” 그들은 금식을 해 왔으며,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떠날 준비를 할 때, 섬사람들은 비를 기원하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에 갈 때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보트에 올라 좋은 날씨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열리더니 섬들에 비의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그 같은 신앙이 대다수의 폴리네시안들이 가진 신앙이며 그로 인해 그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단순하며, 깊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 계시며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으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후에 그 간증의 터전 위에서 생활합니다. ■





# 질 의 응 답

남자 친구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복음보다는  
저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리아호나의 대답

**이**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과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가 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 선교사의 책임

우리가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셔서 복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선교 사업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우리를 이미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사람과 깊은 감정을 나눌 경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관계가 적지 않습니다.

친구의 동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가 가진 교회의 유일한 연결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될 수 있는 한 다른 많은 회원들에게 소개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종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입장에 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교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을 고려할 나이가 되기 전에는 심각한 관계를 갖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표준이 왜 자신에게 중요한지 친구에게 말해 주십시오.

금식과 기도로서 부모와 교회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받아들여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뿐 아니라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도 더 많이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교회에서 보다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간증을 키우는 데 여러분에게만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 관계

우리의 지도자들은 데이트 표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심각한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데이트도 해서는 안 됩니다. 16세 이상의 십대들도 결혼으로 이끄는 구애를 하기에 충분한 나이에 이르고 성숙해지기 전까지 단둘이 사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참조 자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데이트' 참조 [2001], 24~25쪽)

또한 여러분의 친구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이거나 오랜 관계를 가질 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친구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며,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찾는 복음의 기쁨을 친구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심각한 관계를 고려할 만큼 성숙했으며 여러분의 친구가 우정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되면,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침례는 구원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흔히 오는 상처나 화난 감정으로 인한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인도를 구함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 대해 염려하신다는 것과,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에서 결혼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 독자들의 대답



*여러분의 친구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에게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친구가*

이것을 안다면 올바른 동기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리스 브래들리, 17세,  
유타 갈랜드 스테이크 호웰 와드



한 친구가 교회를 알아보기로 했을 때, 저는 그 친구가 단지 제게 관심이 있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물론경을 공부하고 선교사 토론을 하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저는 더욱 나은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울리아나 가우스티, 22세,  
유타 주 프로보시 사론 동 스테이크 플리전트 뷰 제7와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의 모범을 통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친구에게 모범이 되고, 그 친구가 자신의 간증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그 이상의 것들은, 저라면 주님께 도움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 친구가 언젠가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파울라 브란다우 카발칸티, 15세,  
브라질 주앙 페소아 스테이크 토레 와드



와드에 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교회에 참석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가 지난 후에 마침내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교회를 갈 때마다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다녔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교회는 참됩니다.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채드 엘 크로닌 장로, 21세, 영국 런던 선교부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그에게 말하십시오. 그의 생애에서 침례가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하십시오. 침례는 구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친구에게 침례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하십시오.



“**주**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개개인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 (모사이야서 18:9)으로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적절한 의사 소통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9쪽.

에밀리 파쿨라안, 18세,  
필리핀 마카티 스테이크 마카티 제1와드

친구가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강한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벨키스 수게이 벨라스케스 에르난데스, 18세,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라 에스페란사 스테이크 라 에스페란사 와드



그와 심각한 관계에 빠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친구가 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복음을 잘 알도록 격려하고, 기도할 때 언제나 그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침례를 받는 것이 그분께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페이트 에조케오게네 이모, 17세,  
나이지리아 포트 하코트 스테이크 미니-오코로 와드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성명, 나이,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혹은 지부와 지방부)등과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9/0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cur-liahona-imag@ldschurch.org

2004년 9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질문

“외설물이 제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 알고 계십니까?



## 8월에 일어난 일

1878년 8월 25일: 첫번째 초등학교 모임이 유타 주 파밍턴에서 열렸다.

1903년 8월 6일: 러시아가 북음 전파를 위해 헌납되었다.

1827년 8월 21일: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출생!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1935년 8월 14일: 아르헨티나 선교부가 조직되었다.(현재 아르헨티나에는 10개의 선교부가 있다.)

## 나는 누구일까요?

### 물몬경의 영웅

내 생애에 관해 읽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본다.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참조 성구에서 나에 관해 더 알아본다.

- \*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언자였습니다.
- \* 동생이 두 명 있었습니다.
- \* 제 부친은 젊었을 때 “심히 간악하고 사심에 젖은 자”(모사이야 27:8)였습니다.
- \* 후에 제 부친은 그 분의 삶을 바꿔 놓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 \* 후에 부친은 제 형제들을 데리고 조람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 \*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후, 부친은 제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스러운 기록들에 대한 책임을 맡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 제 생애에 아멜리카이아라는 악한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 저는 우리 군대의 지도자인 모로나이의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 저는 암몬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들들을 이끌고 전투를 했습니다.

\* 저는 제 “아들들”과 많은 전투를 했으며, 우리 땅에서 레이맨인들을 몰아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 죽기 전에 저는 다시 북음을 전파했으며 성스러운 기록을 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답을 알기 위해 다음 성구를 참조한다. 모사이야서 18장: 27장; 29:42; 엘마서 31:7; 36~37장; 38:6~9; 45:20~22; 46:1~3, 38; 48:19; 49:30; 53:10~22; 58:41; 62:38, 45; 63:1

##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가 대의에 있어 선두에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이하 래리 킹과의 TV 인터뷰에서) “우리의 문명을 밝히고 우리의 삶에 위안과 평안을 주는 대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지도자가 될 것을 권능으로 촉구합니다. ... 노력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 모든 진리의 적은 노력하려는 여러분을 망설이도록 꾀합니다. 두려움을 던져 버리고 진리와 의와 신앙이라는 대의로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 생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결심을 한다면 그 결심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성도의 빛, 1998년 6월호, 26쪽)



위 왼쪽부터: 그림: 린 포셋, 초등학교의 첫번째 모임, 저지 뉴스의 허락을 받아 힝클리 대관장의 사진을 게재함, 복사할 수 없음; 그림: 아놀드 프리버그, 힐리맨의 이전 용사의 일부



**“마호메트에 대한 말일성도의 관점”**

저는 2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 대다수가 회교도인 나이지리아의 한 대학 학부생으로서,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리아호나*, 2002년도 6월호에 실린 “마호메트에 대한 말일성도의 관점”이란 기사에 감사합니다. 그 기사는 다른 종교나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제게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모구 앤토니, 나이지리아 아베오쿠타 지방부 아베오쿠타 제1지부*

**하나님의 사업이 지상을 채움**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평소처럼 *리아호나*를 읽었습니다. 이 잡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록하라는 영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는 34년 전 스웨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곳에서 나는 스웨덴어로 된 *리아호나*를 구독합니다.

나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새 컨퍼런스 센터의 사진을 볼 때면, 우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고 한 창세기 22장 17절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온 땅을 채우고 있다는 보고에 감사드립니다.(다니엘 2:34~35, 44 참조)

*올라 마틴슨, 매릴랜드 발티모어 스테이크 사스케하나 와드*

**필리핀에서의 신앙**

*리아호나*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인 한 기사는 2001년 12월호에 나온 두앤 비 제라드 장로의 “필리핀에서 신앙으로 걷기”였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전 헌납 기도를 드리시면서 힝클리 대관장님이 드렸던 간구가 응답되었고 계속해서 응답될 것이라 느낍니다.

*엘리자 오 빌라모, 필리핀 가판 스테이크 산토 크리스토 와드*

**“의의 여인”**

2002년 12월호에 게재된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의의 여인” 기사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약간 낙담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엘리상겔라 핀헤이로 페침 소아레스, 브라질 상 조앙오 다 보아 비스타 스테이크 포차스 데 칼다스 제1와드*

#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교회 참고 자료



공과나 말씀을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까? 인용할 부분을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까? 온라인 상에서 자국어로 활용할 수 있는 교회 자료들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www.lds.org**를 방문하십시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세계 지도를 클릭하십시오. 언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바일 사진 촬영: 존 루크

# 친구들



# 무리를 따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힝클리 대관장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용기를 갖는 것에 대해 배웠던 경험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 학교 건물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우리 반은 초등학교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건물에서 6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급의 소년들은 방과 후에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동맹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하실까 봐 집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시내에 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또 공원에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발견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다녔으며 하루를 낭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티스 교장 선생님이 학교 정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편지를 가져오기 전에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티스

선생님은 동맹 휴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교장실로 와서 그것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어머니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초 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써 주셨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꾸지람 중 가장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티스 선생님,

“어제 고든이 결석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든의 행동은 그저 충동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따른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편지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무리를 따른다는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저의 표준에 따라 제 자신이 결정하고 제 주위의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 이후로 제 인생에 많은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199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반짝 위에 나의 집을 지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나는 어떤 잘못도 회개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

“성공적인 ...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그리고] 용서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 나의 반석 위에 지으라

실라 이 월슨

“성공적인 ...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그리고] 용서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그것을 씻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 집을 짓는다면 모래 위에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기초 위에—아마도 콘크리트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거나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여러분의 집이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일지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며 바람이 그 집에 몰아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라.” (니파이삼서 14:24~25)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섯 살이었을 때 나단은 눈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뒤로 수년 동안, 나단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단과 그의 가족은 기도하며 나단이 시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단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단처럼 여러분도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마치 여러분의 집에 들어닥칠 홍수나 비나 바람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간증을 쌓게 될 것입니다.

## 나의 반석 위에 지으라 문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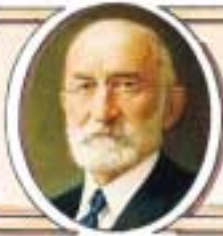
두꺼운 종이에 문걸이를 붙이고 이를 잘라 낸다.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을 반석 위에 적는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을 문 손잡이에 걸어 둔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칠판에 ‘기도는 나와 나의 가족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적는다. 한 장의 종이와 한 권의 책을 보여 준다. 그 책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종이는 우리들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한 어린이에게 그 종이를 바닥에 세우고 그 위에 책을 올려 보게 한다. 어린이 몇 명에게 해 보게 한 후에 책을 지탱할 만큼 종이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한다. 종이를 튼튼하게 만들어 튼튼하게 만든다. 종이 튼트를 세로로 세운다. 그 위에 조심스럽게 책을 놓는다. (사전에 미리 연습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두세 가족을 초대하여 기도가 어떻게 그들을 강화시켜 주고 축복해 주었는지를 얘기하게 한다. 각 가족으로 하여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나 찬송가를 말하게 하고 이를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게 한다.

2.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마태복음 18장 23~35절 참조)를 연극으로 꾸민다. 임금은 종에게 7억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나 그 종은 1,000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려 했음을 지적한다.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403쪽 참조) 다음 질문과 함께 7개의 큰 의문 부호를 준비하여 7개의 의자 아래에 둔다. 1.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가?(우리 하나님 아버지) 2. 악한 종은 누구를 상징하는가?(우리들 각자) 3. 동료 종은 누구를 상징하는가?(우리에게 죄 지은 자) 4.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하나님께 용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5.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6.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7.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어린이들에게 숫자를 세게 한다. 7을 세게 되는 어린이에게 자신의 의자 아래를 보게 하고 질문에 답하게 한다. 모든 질문이 대답될 때까지 계속한다. 마태복음 18장 21~22절을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70을 7번 곱해 보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치신다. 어린이들에게 교리와 성약 64편 10절을 암기하도록 권유한다. 용서에 대한 노래나 찬송가를 한 곡 부른다. ●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사도의 간증



새로운 사도가 된 히버 제이 그랜트는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방문하기 위해 애리조나로 여행했습니다.

보십시오, 길이 둘로 나뉘어지네요. 저쪽 길이 안전할까요?

사람은 갈 수 있지만 마차가 가기에는 너무 진흙탕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갈 것이니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버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는 낙담하여 자신이 함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구세주에 대해 간증해서는 안 돼. 사도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한 시현이 떠올랐습니다. 구세주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아는 그 밖의 사람들이 누가 새로운 사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히버가 그들이 결정한 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의 간증을 결코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간증하면서 오직 기쁨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요셉 스미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훗날 이 경험에 대해 얘기했다.  
연차 대회 말씀집, 1942년 10월, 24~26쪽에서 발췌함

# 데이비드의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1:22)

##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

교회의 제9대 대관장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1970)의 생애에 있었던 이야기

데이비드의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똑바로 앉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침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벽에 잿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깊이 잠든 그의 동생 토마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단지 꿈일 뿐이었습니다. 두 명의 인디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본 데이비드는 숨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아 데이비드에게 쏘았습니다. 화살이 그의 등에 꽂혔습니다. 그런 뒤 그들은 집으로 들어와 데이비드의 어머니를 조롱하며 위협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꿈속에서 화살이 꽂혔던 등을 문질렀습니다. 그는 그 곳을 만져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데이비드는 밤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그에게 실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아버지가 작은 가방을 꾸리고 계신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왜 짐을 꾸리시는 거예요?”

“며칠간 소떼를 몰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소떼들에게 새로운 풀을 먹이려고 잠깐 이동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난 아빠가 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될 거야, 며칠 후에 돌아오마.”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말이 매어져 있는 문앞으로 가시는 것을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신 후, 아버지는 소떼를 따라 말을 타고 떠나셨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잘될 것을 바라면서 걱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다가오고 해가 지자 그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은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마음은 달음박질쳤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는 방의 열린 문으로 어머니가 침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가 촛불을 끄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여전히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집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토마스는 곧히 잠들었지만 데이비드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물이 그의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해졌고 여전히 집 주위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도와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한 가지 문제, 즉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안전한 침대를 벗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침대 밑에 숨어 있다면 어찌지?

데이비드는 그가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침대 밖으로 천천히 기어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그의 어머니와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은 계시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절하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자녀들의 복리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시며, 자녀들의 외침을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1873~1970), Conference Report, 1952년 10월, 129쪽

간구드렸습니다.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사라지고 조용한 느낌이 데이비드의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한 목소리가 분명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아무것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데이비드는 안전하게 잘 수 있다는 감미로운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간 데이비드는 잠에 푹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침대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어려운 시험이긴 했지만 그는 마땅히 그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

연차 대회 말씀집, 1951년 10월, 182쪽에서 발췌.

패트리시아 리스 로퍼는 델타 유타 스테이크 리빙턴 와드의 회원이다.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어떻게 나의 안전한 침대를 벗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 신앙의 방패

**“성** 공적인 ...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그리고] 용서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신앙과 기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해 배운다. 가족은 우리가 이 원리들을 따르도록 도울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개개인의 신앙과 강한 간증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입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81쪽)라고 가르쳤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베소서 6: 16)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신앙의 방패를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어린 시절에 이것에 관해 배웠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집에서 옷을 입게 되는데, 부모님은 악천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나 우비나 장화를 신길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조심스럽게 입히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 ... 우리 아버지께 ... 기도드릴 때, 다시 한 겹의 신앙의 방패를 더 얻게 됩니다.”(성도의 벗, 1974년 10월호, 38쪽)

페리 장로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원리들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함께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을 용서함으로써, 가족을 강화하는 우리의 몫을 행할 수 있다. 이를 행할 때, 성신은 우리 가정을 따뜻함과 평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

## 가정의 밤 활동 및 제언

1. 11쪽에 있는 방패를 잘라 내거나 복사하여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방패 위의 그림에 색칠한다. 각 그림이 의미하는 것을 가족에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이 원리들을 행할 수 있게 상기시켜 주도록 잘 보이는 곳에 그 방패를 걸어 둔다.
2. 가정의 밤 활동을 위해 팀이 협동하여 방패의 네 부분을 제작한다.
3. 가정의 밤 공과나 초등학교 말씀에서 엘 톰 페리 장로의 말씀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신앙의 방패를 만들도록 어떻게 돕는가? 여러분은 가정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 네 가지 원리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 여러분이 리아호나에서 이 쪽을 떼어 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그리거나 인터넷

www.lds.org에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신앙

기도

회개

용서



# 가족의 전통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사 10:5)



현재, 아프리카 남동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크리스토펠 골든 이세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바바라 진 존스

**저**는 남 아프리카에서 자랐습니다. 남  
아프리카에는 사자, 코끼리, 기린,  
얼룩말과 같은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훌륭한 동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종종 이 동물 보호 구역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동물들과 야생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창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남  
아프리카의 동물 보호 구역을 방문하는 것은 제  
아내인 다이안과 제가 네 자녀와 함께 계속해 온  
전통입니다.

오늘날 제가 우리 가족과 더불어 이어 온 다른  
전통은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입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는 우리 가족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훌륭한

가치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규적인 기도와 경전 공부는  
선교사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스무 살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예언자들,  
물몬경, 그리고 복음의 회복에 대해 배우면서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물몬경을 읽으면서 저는 바로 첫  
구절부터 그것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이 여러분이 침례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싶어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그러한 축복들을 받지 못했으므로 제  
생애에서 이 은사의 권세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매일 성경을 읽었지만 성신의 은사를 받은 후,  
경전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주 어린 나이로 할지라도 어린이들은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섯  
살짜리 우리 어린 딸, 샬리가 뺨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던 어느 가정의 밤을 기억합니다.



11세 때의 학교 사진



배구 팀과 함께(오른쪽에 서 있음)



저는 그 애의 오빠인 크리스토퍼가 아마도 동생을 꼬집거나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샤넬, 왜 울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딸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가정의 밤 공과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넬,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이 성신의 권세와 영향력이다.” 샤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샤넬처럼 여러분도 행복하고 화평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옳고 참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은 또한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행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에서의 한 가지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는 7학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열두 살 무렵,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을 때, 반장이 되기로 정해진 우리 반 1등 학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불량스런 아이였습니다. 그 애는 서너 명의 단짝들과 돌아다니며 다른 애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애는 학교에 갓 전학온 저를 겁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애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음을 보고 그는 저에게는 포기했지만 다른 아이들, 특히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이 광경을 본  
저는 그 애에게  
가서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그만두지 않으면  
제가 그 작은

소년을 지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곳에는 이 겁먹은 작은 소년과 저를 둘러싼 대장과 서너 명의 그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장은 뒤로 물러서면서 그 소년을 겁주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와 그 친구들은 몇 마디 빈정대는 말을 하며 떠났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내내 저는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이 무리들로부터 다른 소년들을 계속해서 보호했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든 힘과 영향력이 점차 사라질 때까지 다른 아이들도 역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제가 이 경험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가 올바른 이유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비록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바른 일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악의 영향력을 없애는 용감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함에 결코 어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당당히

할 때, 여러분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



남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사 시절 2001년 가족과 함께 남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 워젤을 지켜 주심

“부르짖기를, ...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  
주시옵소서.”(니파이삼서 4:30)

**줄리아 올드로이드**  
실화

**먹** 시코의 말일성도 정착촌인 파체코의, 태양이 낮게  
걸려 있는 어느 따뜻한 여름 오후였습니다. 밖에서  
놀고 있던 다섯 살짜리 메이와 두 살짜리 워젤은  
굴뚝과 아궁이에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곧 준비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 “메이야!  
워젤아! 가서 씻으렴.” 하고 불렀습니다. 소녀들은 재빨리 엄마  
말씀대로 씻은 뒤 식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엄마는 “가자, 우리 꼬맹이 워젤.” 하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워젤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소를 먹이러  
갔습니다. 메이와 아기 데이비드는 해티 아줌마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워젤은 자기 혼자만 엄마, 아빠와 같이 있는 이  
시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워젤은 너무 신이 나서 저녁 먹던  
순가락을 그대로 움켜쥔 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밤은 워젤이 함께 가면 안 될 것 같아. 말들도 돌봐야  
하고 워젤이 걸어가기엔 너무 멀지도 몰라.” 하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젤, 엄마와 아빠 오늘 밤  
많이 걸어가야 해. 그 순가락 가지고 집으로 가서 해티  
아줌마에게 드리고 언니랑 동생 하고 놀아. 내일은 엄마  
아빠와 함께 소를 보러 가도록 하자.”

워젤은 순가락을 쥔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워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가거라.” 엄마가 말했습니다. 워젤은 돌아서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게  
되자 워젤은 문 가까이에 순가락을 놓아두고 결국 소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워젤은 목장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곧바로 그 곳에 가지 않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젤은 들판과  
옥수수밭을 지나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멀리서 늑대들이  
울어댔습니다. 워젤은 높이까지 와서 오랫동안 그 곳을  
걸었습니다. 워젤은 맨발가락 사이로 질퍽대는 진흙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소 목장에서 돌아온, 엄마는 자녀들의 잠자리를 봐주러  
안으로 들어가고 아빠는 동물들을 보살피러 헛간으로  
갔습니다.

“해티, 워젤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해티 아줌마가 하던 일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지  
않았어요?”

“같이 나갔다가 다시 돌려보냈어요.”

“쪽 못봤어요!” 해티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와 해티 아줌마는 워젤을 부르며 온 방과 뜰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 뒤, 엄마는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워젤이 없어요. 그 애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잠이 들어 있을 거야. 내가 집안을  
살펴볼게.” 하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워젤이 집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강과  
옥수수밭으로 달려가 “워젤, 워젤! 들리니?” 하며 불렀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해야겠어.” 아빠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해티 아줌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캐를 형제님이예요.”

아빠는 바깥으로 달려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워젤을 잃어버렸어요.” 아빠가 설명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가는 길인데, 가서 그 애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캐를 형제가 말했습니다.

캐를 형제가 하디 감독님에게 워젤의 실종에 대해 얘기하자 하디 감독님은 모임을 취소하고 형제들에게 그 애를 찾으러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대 아래와 다른 건물 안을 조사하며 집을 온통 다 찾고 있을 때 엄마는 워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애를 찾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집에서 찾는 일은 이미 다 해보았어요. 그 애는 집에 없어요!” 하며 엄마는 울었습니다.

워젤의 할아버지는 남자들을 모았습니다. “작은 무리로 나뉘어 지역을 찾아봅시다.

누구든지 그 애를 발견하면 총을 다섯 발 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 그룹이 감독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목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감독님, 보세요! 작은 발자국이예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손전등을 높이 들어 눈에 도착할 때까지 주의 깊게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땅이 너무 물기가 많아 어떤 자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디 감독님은 형제들에게 물에 잠긴 땅에서 무릎을 꿇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워젤의 안전과 그 애를 찾으려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하디 감독님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귀를 기울이기 위해 멈추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워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긴장하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워젤이 엄마를 부르고 있어!” 감독님이 소리쳤습니다.

하디 감독님은 분명하게 소리가 들렸던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간간히 들리는 “엄마!”라는 소리에 귀기울이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가 서둘러 갔습니다. 그는 들판을 지나고 언덕을 넘어 거의 3킬로미터까지 달려갔습니다. 거기는 울퉁불퉁한 협곡이었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그의 주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산중턱을 따라 지친듯 걷고 있는 워젤을 보았습니다. 하디 감독님은 그 애에게 달려가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워젤은 잠이 들 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감독님은 워젤을 안고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워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어린 워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땡! 땡! 땡! 땡! 땡! 하디 감독님은 기쁨에 찬 채 총을 발사했습니다. 아빠가 도착해서 감사하며 울고 있는 아내와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뒤 모든 사람이 빙 둘러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디 감독님은 워젤을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로는 워젤의 연약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워젤을 지켜 주셨으며 감독님이 그 애를 발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  
줄리아 울드로이드는 헤리먼 유타 서 스테이크 로즈 캐년 와드의 회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응답해 주십니다. ... 기도를 통해서 ...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 “복음의 원리로 돌아감”,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91쪽.